

인문_심화문제 1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체감난이도 : 상)

송대(宋代)의 유학자였던 주자는 유교 도학에 관한 학문을 연구했던 도학자들의 성즉리설(性卽理說)을 집대성하여 성리학(性理學)을 확립하였다. ‘성즉리’는 인간과 우주 만물의 본성이 곧 하늘이 부여한 이치라는 것으로, 이것은 맹자의 성선설을 계승한 것이었다. 성리학의 이론 체계는 크게 이기론(理氣論), 심성론(心性論), 수양론(修養論)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이기론은 우주 만물의 구조를 이(理)와 기(氣)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하려는 이론이다. 주자는 이와 기라는 두 개념을 통해 사물의 생성과 소멸을 설명하고 이 위에 심성론과 수양론을 구축하였다. 이기론에 따르면 우주 만물은 이와 기가 결합되어 나타난다. 여기서 이는 만물을 낳는 근본 원리를 말하며, 기는 만물을 생성하는 재료를 말한다. 주자는 모든 사물이 이와 기의 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기가 서로 떨어질 수 없지만, 동시에 존재의 차원을 달리하면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기는 서로 뒤섞일 수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모든 사물은 이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근본은 똑같지만 기의 맑고 흐림 또는 바르고 치우침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실에 존재하는 사물은 모두 다른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이기론을 바탕으로 주자는 인간의 내면적 구조와 본질을 규명하는 이론인 심성론을 구축하였다. 인격 완성과 도덕적 실천을 중시했던 주자는 심(心)을 중요한 철학적 과제로 삼고, 심의 작용에 주목하여 심이 ㉠성(性)과 ㉡정(情)을 통괄한다는 ‘심통성정론(心統性情論)’을 제시했다. 성(性)이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이치로, 본연지성(本然之性)과 기질지성(氣質之性)으로 나눌 수 있다. 본연지성은 기질의 영향을 받기 이전의 것이고, 기질지성은 본연지성이 기질의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것이다. 본연지성은 순선무악(純善無惡)한 것으로 도덕적 판단과 행위의 근거가 되지만, 기질지성은 주어진 청탁후박(淸濁厚薄)의 기질적 차이로 이익의 추구나 감각적 욕구에 빠져드는 악한 감정의 뿌리가 된다. 주자가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된 것은 인간의 본성이 필연적으로 기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도덕적 실천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려 했기 때문이다. 즉 도덕적 행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질지성을 변화시켜 본연지성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情)은 성이 외부의 사물에 감응하여 나타난 감정으로, 사단(四端)과 칠정(七情)이 여기에 속한다. 심이 성과 정을 통괄한다는 것은 심이 성과 정을 겸하고 있다는 것과 심이 성과 정을 각각 주재한다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감정이 드러나기 이전에 심은 성이 온전한 모습을 유지하도록 주재하고, 감정이 드러나는 단계에서 심은 정이 올바르게 드러나도록 주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주자의 수양론이 구축되었다. 주자는 순선(純善)한 본연지성이 온전히 드러나기 위해서는 본연지성이 기질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수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주자가 도입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였다. 그 하나는 ‘주경함양(主敬涵養)’으로 경(敬)을 통한 품성의 함양을 말한다. 이것은 삼가고 조심하는 긴장 상태를 유지하여 생각과 정서를 평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른 하나는 ‘격물치지(格物致知)’로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궁구하여 그 지극한 곳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주자는 본연지성이 온전히 드러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 자신을 포함한 세계의 참모습을 밝게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사물의 이치와 도리를 먼저 알아야 그에 맞는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선지후행(先知後行)을 강조하며 격물치지를 수양 방법의 하나로 삼았다. 주자에 따르면 인간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만 천리(天理)를 보존하고 이기적 욕망을 제거하여 이상적 인간이 될 수 있다.

1. 주자의 성리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주자가 독자적으로 연구한 학문으로 맹자의 성선설을 토대로 삼아 확립되었다.
- ② 크게 이기론, 심성론, 수양론으로 구분되며 각 이론은 동시에 확립되어 천명되었다.
- ③ 만물은 그것을 생성하는 근본적인 원리의 차이 때문에 서로 구분될 수 있다.
- ④ 인간은 주경함양, 격물치지 등의 수양 방법을 통해 기질지성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다.
- ⑤ 인간은 수양 행위를 통해서만 매 순간마다 항상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다.

2.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간은 ㉠에 의해 자신의 도덕적 행동을 결정한다.
- ② ㉠에서 ㉡이 발생한다.
- ③ ㉡은 ㉠과 달리 하늘의 이치로만 구성되어 있지는 않다.
- ④ ㉠과 ㉡ 모두 '심'에 의해 동시에 주재된다.
- ⑤ ㉠와 ㉡ 모두 인간의 감정변화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3. 윗글과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했을 때, 윗글의 '주자'와 <보기>의 '왕수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왕수인은 중국 명나라의 사상가로서, 유가 철학의 한 학파인 양명학의 창시자이다. 양명학은 사물의 궁극적인 이치인 '이(理)'를 탐구하는 데, 이 때 양명학의 '이'는 '내 마음이 곧 이치'라는 '심즉리(心卽理)'이며, '이'는 주체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본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마음의 본체는 '양지(良知)'이며, 사람은 하늘의 이치인 양지를 지니고 있다고 했다. 양지는 옳고 그름을 가려낼 수 있는 타고난 도덕적 자각 능력이다. 그래서 자신의 사사로운 생각에서 벗어나서 양지를 회복하는 과정을 강조했다. 자신의 양지를 보존하려는 마음, 자신에게 충실하고 진실하여 그 스스로 만족하기를 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마음과 이치가 합일된 경지이자 인간 자신이 타고난 도덕적 자각이 완성된 상태인 '치양지(致良知)'에 이르게 된다. 결국, 양명학에서 격물치지(格物致知)란 내 마음의 양지(良知)를 각각의 사물에서 온전하게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내 마음의 양지인 천리를 각각의 사물에서 온전히 실현하면 각각의 사물이 모두 그 이치를 얻게 된다. 곧, 내 마음의 양지를 온전하게 실현하는 것이 치지이며, 각각의 사물이 모두 그 이치를 얻는 것이 격물이다. 따라서 왕수인은 격물치지를 '바르지 않은 것을 바르게 해서 앎을 이룬다'는 뜻으로 해석했다고 할 수 있다.

- ① 왕수인과 주자는 모두 동일한 '이'를 바탕으로 각자의 학문을 전개했다.
- ② 왕수인은 마음 밖에는 이치가 없고, 마음과 무관한 사물도 없다고 보았다.
- ③ 왕수인은 주자와 달리 '양지'를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발휘하여 일을 바로잡는 것이 '격물치지'라고 보았다.
- ④ 주자는 도덕 실천을 강조한 왕수인과 달리 진리에 대한 탐구를 강조했다.
- ⑤ 왕수인과 주자는 모두 노력을 통해 도덕적으로 이상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체감난이도 : 중하)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 가사를 여러 번 흥얼거리서 외우는 것은 가사를 기억하는 것이고, 그 노래를 불렀던 소풍을 떠올리는 것은 특정한 하루를 기억하는 것이다. 이때 내가 가사를 암기했던 노래를 부르거나 소풍을 떠올리는 것은 현재이며 그 사건이 있었던 것은 과거이고, 기억은 나의 과거를 현재에 연속시키는 역할을 한다. 프랑스의 철학자 베르그송(Bergson)은 이 두 기억을 습관 기억과 이미지 기억으로 분류하고, 이 기억들이 어떻게 현실에서 재생되는지를 설명한다.

습관 기억이란 형성 과정에서 반복적인 노력이나 훈련이 필요한 것으로, 시를 외우거나 운동이나 춤을 익히는 과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시를 외우는 것은 춤을 익히는 것과 다른 순수한 정신적 과정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베르그송은 ①무수한 반복을 통해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는 암송의 과정도 신체의 단련과 동일한 노력이 반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습관 기억이 우리의 신체를 통해 자동적으로 행동으로 연결된다고 본다. 우리의 암기가 완벽하다면 시의 첫 단어만을 듣고도 다음 내용을 줄줄이 암송할 수 있듯이 말이다.

그럼 이미지 기억은 무엇일까? 우리가 노래 가사를 외우기 위해 여러 번 노래를 흥얼거리는 경우를 다시 생각해 보자.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내 방에서, 버스 안에서 등 우리가 노래를 흥얼거리는 주변 상황은 매번 달라지지만, 가사의 암기를 위해서는 이런 변화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길을 걷다가 내가 이 길에서 노래를 흥얼거렸던 사건이 눈앞을 스칠 수 있다. 이처럼 과거의 어떤 특정한 시간과 공간, 나의 행동이나 감정 등 그때의 사건을 ②야기하는 모든 상황이 서로 얽혀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인상으로 떠오르는 것을 우리는 이미지 기억이라고 한다. 이것은 습관 기억과 달리 외우고자 하는 어떤 노력 없이 저절로 보존됐다가 현재 상황의 자극이나 요청에 따라 이미지 형태로 자유롭게 떠오르는 기억이다.

[A] [습관 기억과 이미지 기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순수 기억으로, 순수 기억은 무의식적으로 존재하는 우리가 살아온 과거 전체를 가리킨다. 우리는 그 순수 기억 중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것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현재 속에서 재생하고, 과거를 현재의 순간으로 연장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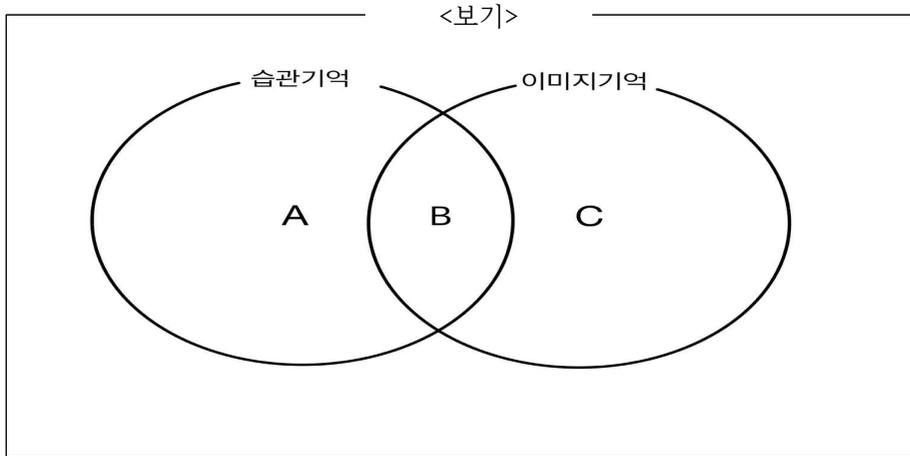
그는 이 과정을 원뿔 도식을 가지고 설명한다. 거꾸로 된 원뿔 전체는 잠재적인 순수 기억이며, 꼭짓점 S는 우리의 현재인 신체가 놓여 있는 지점으로 이 점을 통해 기억은 현재화되어 외부 대상 세계인 평면 P의 일부를 이룬다. 나의 신체는 나를 둘러싼 외부 세계를 ③구성하는 것들과 작용, 반작용을 하며 순수 기억들을 과거로부터 현재로 불러낸다. 베르그송은 사람들이 S에 집중할수록 외부 자극에 행동이 바로 반응하여 충동적으로 살고, 원뿔의 바닥인 AB 면에 집중할수록 현재의 삶에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 기억만을 떠올리므로, 우리가 이 둘 사이에서 운동을 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순수 기억의 존재와 현실화는 시간의 본질에 대해서 새로운 함축을 보여 준다. 우리는 이 순간 오로지 현재만 존재하며, 현재가 지나간 다음에 생기는 과거는 영영 ④사라져 버린다고 생각하기 쉽다. 이러한 시간에 대한 관점은 현재가 지나가면 과거가 되듯이 새로운 현재는 미래로부터 오기 때문에 미래 역시 이미 주어진 것으로 본다. 이때 시간은 구체적인 삶과는 무관한 누구에게나 동질적으로 주어지는 추상적인 시간으로, 시계를 통해 측정 가능한 시간이다. 그러나 베르그송은 우리에게 각자의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고 있는 주관적 시간이 있고, 이 시간은 기억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함으로써 지속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는 과거가 현재보다 먼저 존재하지만, 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함으로써 지속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는 과거가 현재보다 먼저 존재하지만, 이 과거와 현재가 동시에 공존하면서 현재가 ⑤생성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의 현재는 과거의 지속이며 창조적인 생성이고, 이러한 시간은 운명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삶, 부단히 변화하는 열린 미래의 삶을 긍정할 수 있게 한다.]

1. 윗글의 전개방식으로 옳은 것은?

- ① 관련된 주요 용어의 정의를 바탕으로 기억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② 기억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견해를 비교하며 각 견해의 장단점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③ 기억에 대한 한 철학자의 견해를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④ 기억력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다.
- ⑤ 습관 기억과 이미지 기억의 개념을 정의한 후, 이에 대한 베르그송의 견해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2. <보기>는 진영이가 윗글을 읽고 습관 기억과 이미지 기억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그린 벤 다이어그램이다. 베르그송의 견해를 바탕으로 <보기>의 A, B, C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 기억을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
- ② A : 신체의 단련과는 다른 과정을 거쳐 수행된다.
- ③ B : 우리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무의식의 일부이다.
- ④ C : 뚜렷한 목적의식 없이 머릿속에 저장된다.
- ⑤ C :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다.

3. [A]를 읽고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아무도 쓰지 않는 할머니의 방을 보며 할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은 기억을 현재 속에서 재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군.
- ② 베르그송의 원뿔 도면을 바탕으로 할 때, 원뿔의 꼭짓점에만 집중하는 행위와 밑면에만 집중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겠군.
- ③ 미래는 현재에 의해서 변화할 수 있으니, 지금 주어진 시간에 충실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 중요한 것이겠군.
- ④ 시계를 통해 측정 가능한 시간이라 하더라도 개개인의 삶에 의해 그 길이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군.
- ⑤ 주관적 시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사람들은 같은 길이의 시간을 가지고 제각각의 삶의 만족도를 얻을 수 있겠군.

4. ㉠~㉥의 문맥적 의미를 고려했을 때, 바꿔 쓸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수많은
- ② ㉡: 일으키는
- ③ ㉢: 이루는
- ④ ㉣: 소멸(消滅)되어
- ⑤ ㉤: 형성(形成)되는